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가? (느 1:1-11)

What Must We Weep For? (Neh 1:1-11)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출생하여 파사 아닥사스다 왕 때의 선지자로 학개와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등과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박노철 목사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는데 술관원은 왕이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ehemiah was born in a foreign country as a prisoner of war, and worked for the Persian king, Artaxerxes, a contemporary of the prophets Haggai, Zechariah, Esther, and Ezra. The name, 'Nehemiah,' means "The Lord comforts."

Nehemiah served as a cup bearer to the king. This high position was given to him by the king, who took him into his confidence. However, Nehemiah heard sad news.

1. 느헤미야의 눈물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다른 이들이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이들을 만난 느헤미야의 첫 번째 질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기를 수일 동안 했으며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1. Nehemiah's tears

Nehemiah's brother, Hanania, and several other persons had come from Judah. The first question that Nehemiah had for them was about the situation in Judah and Jerusalem. They said that the wall of Jerusalem had been destroyed. When he heard this news, he wept and fell sad for several days. His sorrow was so deep that he could not do anything. In the meantime, all he could do was pray to God.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신의 본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 그의 모든 소원, 그의 모든 열망과 기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He was, first of all, concerned about Jerusalem, because it was God's city. It was his hometown where God's people lived. All of his concern, desire, anxiety, and expectation was always about God's city, God's people, and God's kingdom, which was Judah and Jerusalem.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울어야 할 것을 위해 울고, 슬퍼해야 할 것을 위해 슬퍼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What is it that we must be weeping for? We must be a people of God, who weep for what we need to weep for, and feel sorrow for what we need to be sorrowful for.

2.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한 이유는 조국과 민족의 환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울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 Nehemiah's prayer

The reason why Nehemiah wept and prayed was because of the afflictions of his people in his home country. When he thought about God's people being assaulted in the midst of their affliction, he could not help but weep.

기독교는 애국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Christianity is a patriotic faith. All of God's great servants mentioned in the Bible wept, fasted, and prayed for their home country. These days, however, it is hard to find any Christians who will shed their tears and pray for their people and country. Those who are saved have a mission to pray for their country.

위대한 신앙의 선진 모세, 사무엘, 다니엘, 에스더는 결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라와 민족의 아픔으로 인해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oses, Samuel, Daniel, and Esther were mature in the faith, and never stopped praying for their people and country. The Apostle Paul also said that his affliction did not cease in his heart due to his people's and country's pain.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으로 어떤 면으로는 조상들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죄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죄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Since Nehemiah was born in Persia, brought up by Persia, and influenced by Persia, in a way, he was not related to his ancestors' sin. Nevertheless, he considered the previous Israelites' sins as that of its descendants, and confessed his father's sins and the sins committed by his homeland, and prayed to the Lord.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조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며 기도했습니다.

It was not an unconditional prayer, but he prayed that God keep His covenant and give compassion, holding onto God's word and setting forth a concrete strateg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We, as Christians, must be a people who love our country. When we pray in the fullness of our grief for our country and our people, God must restore true peace and prosperity to our country.

I earnestly pray that every moment of prayer in our life will be like Nehemiah's pray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20차 KIMCHI 신학 세미나 특별헌금

오늘, 주일 I,II,III부 예배 시간에 - 찬양예배시 발대식 가져

오늘 KIMCHI 신학 세미나를 위한 특별헌금을 I,II,III부 예배시간에 각각 드립니다. KIMCHI 신학 세미나는 세계로 잔 위원회의 공인을 받은 기구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곳의 문화와 언어 및 생활 습관 등이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적응 기간이 요구 되지만 현지인을 양육하여 선교도 록 하면 비용과 시간도 절약되고 선교의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어 1990년 11월2일 제1차 KIMCHI 세미나 때부터 각

국의 교회지도자를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새벽 기도회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제20차 KIMCHI 신학 세미나는 기독교 복음의 사 각지대인 방글라데시의 교회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신학 세미나로서 방글라데시 교계 지도자들이 은혜 받고 갱신되어 자국의 복음화 운동에 열렬히 앞장 설 수 있도록 전 교인의 뜨거운 기도와 참여를 바란다.

홍해작전 개전 임박 6월6일(월) 오전5시 - 본당에서

2011년 홍해작전(준비위원장 조정식 장로) 개전이 임박하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번 홍해작전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 6:4-9, 사 40:27-31)를 주제로, "기도와 부흥"을 주제로 6월6일(월)부터 25일(토)까지 박노철 목사의 설교로 진행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와 순종으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한 것과 같이 홍해작전을 통하여 성도 들도 민족 앞에 놓인 홍해를 실족하지 않고 건너 국가와 교회, 가정과 개인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바란다.

임우민 교수 특강

6월2일(목) 오전11시, 웨스트민스터 홀



임우민 교수(백석예술대학 사회복지학 부 전임 조교수) 특강이 6월2일(목) 오전11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S.O.S 성경적 훈육을 찾습니다!"(베드로후서 3:14-18)를 주제로 열리는 자녀교육을 위한 특별 강연에 교회학교 교사와 온 성도들은 참여하기 바란다.

여름철 목사복 착용

6월1일부터 여름철 동안 모든 교역자들은 반팔 상의 목사복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목사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남녀 선교회 월례회, 심방예배 등을 인도할 수 있다.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

6월4일(토) 오전11시, 8층 만나홀

제1,2스데반회(회장:김진환집사, 오치열집사)에서 주최하고 서울교회 70인 전도대가 협력하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가 6월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층 만나홀(801호)에서 열린다. 70세 이상의 서울교회 및 지역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하는 이 행사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관현악단의 연주, 은빛중앙단의 특송과 특별 찬양, 성경퀴즈 등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본 행사, 그리고 식사시간으로 진행된다.

교회와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의 시간을 제공 할 이번 사랑의 대잔치는 전년에 이어 지역사회 복음화와 섬김의 기쁨,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전인옥 성도(1교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 미션스쿨에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섬기는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으나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차츰 피곤함이 이유가 되어 주일 지키는 일이 소홀해지면 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늘 마음 한 구석에 믿음에 대한 갈등과 망설임, 죄책감을 느끼며 서울교회에서 가끔씩, 내 몸과 마음이 허락되어지는 그때마다 그렇게 가끔씩 예배드리기를 10여년..... 참으로 오랜 시간을 그렇게 흘러보내던 어느 날, 서울교회 고등부 1학년이 입학한 아들의 선생님을

통해 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인 저보다 더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아들을 보살피시는 모습은 제가 감동을 받기에 충분했고 어미된 자로서 한없이 부끄럽게 했으며 그 감동과 부끄러움은 마침내 저로 하여금 서울교회 새가족부 문을 두드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8주간의 교육이 시작될 즈음 제 신변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감당기 어려운 그 일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제게 임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이제야 깨달아 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준 서울교회 새가족부 교육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르도록 내려주시는 동아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소요리문답 교육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실 거라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이후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서 내려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4]

(문 3) 오경을 기록한 이가 모세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답) : (지난주 계속)

주전 2천년경 애굽인에 의해 경영된 시나이반도의 청록색의 터키옥 탄광지역에 있는 Serabit el-Khadim에서 발굴된 비문은 또 하나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애굽의 상형문자와 닮은 그러나 가나안 말과 더 가까운 히브리어와 유사한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전 17세기 또는 16세기 경 가나안 인들은 비록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았지만 자기들의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주전 1400년경에 기록된 Ugarit문자로 쓰여진 진흙판이 북 시리아 Ras es-Shamra에서 발굴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히브리어와 비슷한 가나안 사람들의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업상 문서, 정부 공문서 그리고 종교적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볼 수 있는 가나안의 신들 이름들(EI, Anath, Baal, Ashrat, Mot)과 오경에서 읽을 수 있는 히브리 시들과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지휘아래 히브리 정복자들이 애굽의 높은 문명권에서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문명권으로 진입하는 명백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수의 종교적 문서들이 Ras Shamra와 Serabit el-Khadim 즉 고대 근동지방 백성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히브리 민족만이 그들 종교적 기록을 천년 늦게 기록 할 이유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설과 양식비판설로 모세의 오경 저작설을 부인하는 비평주의자들이 받침대로 삼고 있는 현대 고고학적 발굴은 오히려 모세의 오경 저작설을 크게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예언적 선견지명을 통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기록한 것이므로 지나간 과거사나 심지어 미래사항까지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제39회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세미나

한국교회를 진단한다

다음은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목사)이 지난 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제39회 기독교학술원 공개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이 날 세미나는 3명의 발제자와 3명의 논찬자가 나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 강사로 나선 김신대 김홍기 총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명암”이라는 제하로 한국교회는 자기변혁을 위해 회개운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물량주의, 성공주의의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의 신앙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산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운동으로,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라는 이원론적 신앙에서 복음화와 인간화를 이루는 총체적 선교로, 현실도피적 종말신앙에서 현재적 천국건설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 총장은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하며, 한국교회가 신학적 견해 차이보다는 교권적 이유로 사분오열되었음을 회개해야 하며, 남성 중심의 교회를 개혁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교회와 사회를 섬겨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장신대 김명용 교수는 제 2 강연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허와 실”이라는 제하로 “교회는 바른 신학의 터전 위에서 있어야 하고 목회자는 바른 신학에 입각해서 바른 목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성서중심의 신학과 목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의 중요성,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지 않는 전인적 생명신학의 교회,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성, 고난의 신학과 제자의 길, 신학의 토착화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형성, 성령의 능력과 기도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신대 강원돈 교수는 “윤리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현실”의 제하로 교회의 신뢰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역자의 민주적 리더십과 전문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치리장로 종신제가 아닌 임기제를 통해 교회의 건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종윤 목사는 첫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분열된 한국교회사에 대한 해석이 각 교단마다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교회사를 함께 재정리함으로써 고려과와 기장이 갈라진 원인,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진 원인을 바로 기록하자. 둘째,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교파의 신학적 경향이 한 교단 안에 모두 뒤섞여 있음을 지적하면서 장로교의 신학, 감리교의 신학 등 각 교단마다 자신의 신학을 바로 정립하자. 셋째,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강원돈 교수가 제안한 장로 임기제는 이미 장로·목사 안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선례를 참고하면 장로·목사 종신제 폐지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며 이날 세미나의 결론을 내렸다.

KIMCHI신학세미나 - 방글라데시

거룩한 도전과 응전

박진아 목사 (선교위원회 지도)

제20차 김치신학세미나가 오는 6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치신학세미나는 1990년에 제 1차로 개최된 이후로 전 세계의 문화권, 즉 동구권, 중국어권, 힌두교권, 아프리카, 모슬렘권, 러시아권, 오세아니아, 유럽과 미주 등 각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신학과 교회의 리더십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교회 파송 선교사인 수브로토 바로이 목사를 비롯한 방글라데시의 교계 지도자들 20명이 참석합니다.



방글라데시의 기독교인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보다는 오직 교회에서 목사가님이 전달하는 설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낮은 문해율 때문이기도 하며 이슬람의 지도자인 '이맘'의 가르침을 받지만 코란을 읽지 못하도록 만든 이슬람 전통과 경전이 의미가 없는 힌두교 문화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신학적인 바른 연구가 없이는 방글라데시의 교회들이 바로 서며 자국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사명을 스스로 감당하기에 적지 않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김치신학세미나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방글라데시의 교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한 특성들을 선철하고 말씀에 기초하는 바른 신학적 연구를 하며 나아가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서 받음과 동시에 거룩한 응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 성장해가는 방글라데시의 교회와 신학의 발전을 함께 목도할 것을 기대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우리교회는



지난 21일 제5회 서울교회, 동산교회(청주), 한별교회(청주) 친선 족구대회가 있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장년5부 친양대회



다락방 소개

우리 1-9 다락방장님은...

이정화 집사(1교구)

우리 1-9 다락방장님 이름은 박성신 집사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에 "하나님을 정성껏 믿어라"라는 뜻에서 이름을 정성성(誠), 믿음신(信)이라 지으셨다 합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 모임에 함께한지는 4년째입니다. 그동안 전입, 전출이 많은 우리구역의 특성상 다락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다섯 다락방 가족들의 중심에는 늘 우리 다락방장님이 계십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어느 날 우리 다락방장님은 두 달째 감기를 앓고 있던 내게 따뜻한 호박죽과 시원한 동치미를 한보따리 싸들고 오셔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무척 속스러워하는 내손을 꼭 부여잡

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날, 우연히 집사님의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적어 놓으셨을까?

- 2011년 2월 3일 오늘의 기도제목 -

지서운 집사님 순종하는 자녀들의 학교생활 중심에서 선한 영향력을... 김순자 집사님 기도하는 삶의 중심에 주님 말씀이 항상... 유미숙 성도님 자녀들 성령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사... 이정화 집사님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기 쉽지만 항상 하나님 가까이...

그 수첩엔 순서대로 기도 제목만 언뜻 봐도 30여 개가 훨씬 넘었고 제목마다 깨알같은 성경 말씀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10

분! 기껏해야 내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만이 기도의 전부였던 내게는 정말 감동적인 기도 수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 들을 매일 매일 어떻게 다 하실까?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에 우리 다락방 식구들 모두가 어떤 커다란 시련 없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척 무뚝뚝하고 언뜻 보면 무서운 여학교 사감선생님 같지만 오늘 난 나와 내 가족들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 다락방장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장님이 하시는 기도 모두모두 들어주세요." 지금 이시간도 홀로 앉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을 우리 다락방장님은 박성신 집사입니다.

동정

■ 이종윤(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서울장신대 석좌교수, 서울교회 원로)목사는 아시아로잔 위원회(의장: 이종윤) 제7차 지도자대회(ALCOE VII, 6월1일-4일) 기조연설차 5월28일 몽골로 출국한다. 29일 몽골제일교회(담임: 몽크바타르 목사)참립20주년 기념감사예배 설교를 하고, 30일에는 울람바타르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도 한다.

■ 사임: 2008년부터 영어예배부를 섬기던 조슈아 조 목사는 오늘(29일)부로 사임하였다.

■ 개인전: 전광영 집사 6월1일-30일, 예배 6월1일(수) 오후2시 30분 갤러리 현대 강남스페이스 Tel. 02-519-0800

■ 하프독주회: 윤희정 성도(4교구 권혁달 집사, 이수경 권사 자부) 5월31일(화) 오후8시 금호아트홀

■ 주간식당봉사: 제2권사회(5.29) 빌립선교회(6.5)

■ 금주의 식사: 여옥기 권사 가정 (故 이남호 장로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태초의 대자연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고 하실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청정지구였다. 노아홍수(창 6)이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 생각의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홍수로 지구를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여 기적(요 6:12)에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음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보전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지구는 화학연료와 불안정한 원전 에너지, 곧 닥칠 에너지 고갈 두려움 속에, 점점 심해져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체에 치명적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발전기구(OECD) 회원국들은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주범인 탄소(CO2)발생을 줄이는 즉 오염돼 가고 있는 지구를 살리자는 저탄소녹색혁명을 벌이고 있으며, 녹색성장 성장지속발전에 중장기발전프로그램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녹색제품생산과, 올해 4월 5일부터 환경법

일부를 개정 녹색제품을 공공기관 등을 통해 구매 의무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에너지 과소비가 개선되어야함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 홍보, 교육 등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신 국가 패러다임이다.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 국제기대에 부합하는 글로벌리더로서의 국가 위상과 환경과 경제 양측의 시너지(synergy)효과가 극대화되어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기술과 시설투자가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뜨거운 물 적게 쓰기,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제품 끄기, 나무 심기 등에 우리 믿는 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오염된 지구환경과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는 녹색혁명의 참여자(greenfluencer)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

오영숙 권사 12교구 녹색제품전문관리사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1년도 홍해작전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홍해들이 갈라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 2011년도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해 방글라데시 교회가 복음의 도전을 받아 부흥의 불길이 일도록
-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교회는 항상 효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캄보디아에 파송되신 이재율, 박병진 선교사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의 열매 풍성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